

문제. 가)의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안락사를 선택한 근거를 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다)를 바탕으로 적극적 안락사 허용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700~800자)

가)

호주의 존경 받는 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인 데이비드 구달이 스위스 바젤의 라이프 서클 클리닉에서 의사들의 지도 아래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한 후 사망했다. 이 과학자를 데변하는 ‘Exit 인터네셔널’은 구달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들으며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104세의 할아버지는 이달 초 호주 퍼스에서 유럽으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들로부터 2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끌어 모았다. 구달이 죽기 이틀 전 화요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5년에서 10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지고 시력이 약화되면서 자신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휠체어와 보행기를 필요로 하는 구달은 바젤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옛날에는 일하면서 생활했지만 지금은 밖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저는 다시 덩불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가 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중략) “저는 아직 새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더 나빠지면 이제 그것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

스토아 철학의 ‘삶의 방법’은 만약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신의 존귀함을 더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침해받고 있다면, 그에 게는 바로 그 ‘삶의 방법’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가르친다. (중략) 세네카는 인간이 가진 선택의 자유는 최소한 언제 어떻게 삶에서 벗어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이 삶인지 죽음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육체가 그 의무를 다했을 때, 고통 받는 영혼을 육체로부터 구해내는 것은 올바른 일일 것이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이 왔을 때 영혼을 구해낼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이 두렵다면 예정된 시간 전에 영혼을 미리 구해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년이 되더라도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단지

노년이라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년이 내 이성을 빼앗고 그것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한다면, 나에게 삶이 아니라 단지 수족의 움직임만 남는다면, 나는 힘없이 금세 부서질 그 건물에서 당장 뛰쳐나올 것이다.

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은 환자의 영구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의 삶을 중단시키는 고의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간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안락사나 PAS가 증가할수록 자살률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것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1990~2013년 사이에 수행되고 서던 메디컬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 관측 불가능한 요인 등을 통제한 결과 PAS 합법화가 총 자살률을 6.3% 증가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BBC에 따르면 사람들이 안락사를 생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우울증, 통제력이나 존엄의 상실, 두려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혐오하는 감정 등이 있다.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의사들이 PAS나 안락사 승인을 내리는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안락사보다는 PAS의 승인이 더 높았다. 사람들이 안락사와 PAS를 인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느끼는 고통의 수준,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한 정도, 환자의 나이, 질병의 치료 가능성 등이다.

어떤 경우든 의사는 환자의 생각과 관심사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의료 기술의 발달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사회적으로도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회적 케어 시스템은 환자들의 불안감, 우울, 질병에 의한 고통 등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